증심사지구 게스트하우스서 하룻밤 가능할까

상가번영회 민원…동구, 상업·숙박시설 중복 지정 추진

국내 국립공원내 중복시설 지정 없어…환경부도 "불가"

광주시 동구가 상업시설지인 무등산 국립공원 내 증심사지구를 상업 및 숙박시설지로 중복 지정을 추진한다. 증심사지구 내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국내 21곳의 국립공원 중 부지 내 중복시설지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숙박시설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2018~2020년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계획 수립시 무등산 증심사지구 1만3038㎡를 현 상업시설지에서 상업 및 숙박시설지로 변경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지난 4월 증심사지구 상가번영회원 39명은 ▲지구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기관 지정 ▲지구 내 도로 일방 통행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허용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는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주시 등과 회의를 거친 끝에 시설물은 광주 푸른도시사업소가 관리하고, 지구 내 도로 일방통행은 향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추진하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지구 내 39개 동 건물 중 2~3층 공간이 비어 있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스트하우스 등을 만들어 운영하면 공실률을 줄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박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의 국립공원지역과 달리 도심지역 국립공원 상업시설지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 없다. 환경부도 현 상황에서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계획 수립시 증심사지구가 중복시설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동구의 생각이다.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단 시설지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지구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지는 상업용도로, 숙박시설지는 숙박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증심사지구를 국립공원 부지에서 뺀 뒤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부지에서 빼는 절차도 쉽지 않다.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부지 만큼의 면적이 새롭게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복시설지로 지정되더라도 개별법을 정비해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수준에서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더워지는 가을

10월에도 20도 후반 기록…지구온난화에 '선선한 가을' 옛말

여름에 이어 가을마저 더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9월은 물론 10월에도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면서 선선한 가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6~2015년) 광주·전남지역의 가을철(9~11월) 평균기온은 16.3도로 평년(15.8도, 1981~2010년)보다 0.5도 높아졌다.

최근 10년 월별 평균기온은 9월 22도(평년 21.8도), 10월 16.6도(평년 16.1도), 11월 10.1도(평년 9.6도)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의 10년 주기별 가을철 평균기온은 1985~1995년 15.7도, 1996~2005년 15.9도로 나타나는 등 최근 30년 동안 0.6도 상승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6.3도, 2014년 16.5도, 지난해 16.5도 등으로 평년(15.8도)보다 높은 기온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을철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각각 세 번째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고흥 34.1도, 장흥 33.7도 등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뛰어 넘으면서 곳곳에서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한편 올 여름은 1994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올 여름(6월~8월21일) 평균기온은 25도로 평년(23.8도)보다 1.2도 높았다. 월별로는 6월 22도, 7월 25.8도, 8월 28.4도 등으로 평년보다 0.7~2.2도 가량 높았다.

광주·전남의 올해 폭염일수는 15.7일로 1994년(22.4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열대야일수는 14.9일로 역대 6위로 집계됐다. 광주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6일로, 역대 2위와 3위로 기록됐다. /김경인기자 kki@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광주 금남로 등 교통혼잡지역에서 2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이 실시된다.

훈련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역으로 동구 금남로와 서구 화정동 일원, 남부소방서~무등시장, 북부소방서~전남대 후문, 광산구청~광주공항 등 전국 236곳으로 일반 차량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한다. 일방통행로나 편도 1, 2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나 2차로로 비켜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

가을바라기 처서인 23일 '가을의 전령사' 해바라기가 활짝 핀 장성군 북이면 백양사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처서는 24절기 중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로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전하듯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59 / 해짐 19:10 / 달뜸 23:13 / 달짐 12:03

덥다 더워!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24/35	보 성	맑음	22/32
목 포	맑음	25/33	순 천	맑음	24/33
여 수	맑음	25/32	영 광	맑음	23/34
나 주	맑음	23/35	진 도	맑음	22/34
완 도	맑음	23/32	전 주	맑음	22/32
구 례	맑음	22/34	군 산	맑음	24/35
강 진	맑음	22/33	남 원	맑음	23/34
해 남	맑음	22/34	흑산도	맑음	23/30
장 성	맑음	22/3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먼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0.5~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동)	북동~동	2.0~3.0	북동~동	1.5~3.0
	먼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1.5~2.5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17	11:22
	18:54	23:49
여수	00:42	06:52
	13:20	19:14

◇ 주간 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24/35	23/32	23/31	23/30	22/30	22/31	23/32

전남교육청 핵심 현안 또 무더기 재검토

골프실습장 설치 등 6개 중 4개…여수국제교육원 '적정' 결정

여수시가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점을 활용, 여수시 3청사(205억원 상당)를 활용해 조성키로 했던 가칭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이 핵심 현안으로 추진했던 교육용 골프실습장 설치사업은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도교육청의 6개 사업 중 4개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전남교육청은 애초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18홀) 설치 ▲나주 매성초·중 신설 ▲여수국제교육원 ▲목포 목상고 이전 ▲웅동초 신설 방안을 올렸다. 교육부는 그러나 여수국제교육원 사업만 적정 판정을 내렸고 목상고의 경우 '자체 재원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계 반응이다.

다만,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의 경우 여수시가 돌산청사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리모델링 및 기숙사 신축 공사비 등으로 15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정'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교육용 골프실습장 설치사업의 경우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재검토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나주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유입 학생들을 수용할 초·중학교를 신설, 인근 초등학교 과밀화를 막겠다며 제시했던 매성초(281억)·중학교(224억) 신설 계획도 '개교 시기 조정'을 이유로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내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응시원서를 낸 뒤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